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13:12~16, 합3: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단군상문제대책위원장  
제 목 총회단군상문제대책주일 안내 및 자료 발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제89회 총회(2004. 9. 13(월) - 17(금),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10월 3일을 포함한 첫주일을 단군상문제대책기도주일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총회가 제공하는 내용으로 설교 또는 교육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각 노회에서는 첨부한 단군상문제대책주일 설교문을 귀 노회 소속 교회에 배부하여 10월 3일을 포함한 첫주일(2019년 9월 29일)을 단군상문제대책기도주일로 지키며 설교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자료는 총회 홈페이지(<http://www.pck.or.kr>)→자료실→목회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 부 :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주일 설교문(2019년)” 끝.

총 회 장 림 형  
서 기 김 의



과장대우 이현식 실장 윤미경 국장 안영민 사무총장 변창배

시행 사무국-3600 (2019.9.17.)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 (연지동)

전화 02-741-4350(내선9213) 전송 02-6008-2982

/ shallom00@pcknet.org

/ [www.pck.or.kr](http://www.pck.or.kr)

/ 공개

# 단군상(檀君像), 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본문/신명기4:23~24, 찬송/350장)

1. 우리가 물이라면 새 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2.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텃다 이 날이 시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이 날이 시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3. 오레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리 목단 앞에 삼천 필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 이 노래는 위당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 개천절 노래입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桓因)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할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탐내더니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환인이 허락하자, 천부인(天符印) 세 개, 바람, 비, 구름을 얻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금의 평안북도 묘향산인,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신시(神市)라 이름 짓고, 곡식, 목숨,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 때 환웅 앞에, 같은 굴속에 살고 있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제발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령한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이것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굴을 뛰쳐나와 버렸고, 잘 견딘 지 21일(삼칠일) 만에 곰은 여자, 곧 웅녀(熊女)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된 웅녀는, 신단수 아래서 ‘여자만 되면 뭘 합니까? 결혼해 아들 하나 낳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 이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왕검(檀君王儉)입니다. 그 후 단군왕검은 아사달을 도읍으로 정하고, BC 2,333년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1,500년 동안 다스리다가, 1,908살에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고려 25대 충렬왕 15년, 중(僧) 일연이 정사(正史)가 아닌 야사(野史)로 쓴, 삼국유사(1280년으로 추정)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神話, Mythology)입니다. 그렇다면 단군이 뭘니까? 단군은 그 정의조차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신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신화 일 뿐입니다.

## I. 그런데, 이러한 신화에 나오는 단군을 하나님으로 만든 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1. 단군 신화를 기초로 하여, 단군을 국조(國祖)로 섬기면서 숭배하는 종교는 단군교(檀君敎)입니다. 단군을 신(神)으로 숭배하는 주요 분파로는, 단군교, 대종교, 한얼교, 현정회, 금강 대도, 단군 성주교, 단군 조선종천교, 단군 숭녕회, 단군 팔조교, 동학회, 중앙수도원, 환중교, 배달교, 통천교 등 20여 분파가 있고, 12개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단군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단군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두 한국의 단군 하나님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얼빠진 단체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단군'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문화운동연합입니다.

## II. 여러분! 도대체 단군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1. 한문화 운동연합(현 홍익문화 운동연합)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정, 공원, 공공장소,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까지 불법으로 단군상 369기 이상을 기습적으로 세웠습니다. 효 정신을 회복하고, 단군의 민족정신을 함양하여 남북통일의 국민염원을 포장, 사이버 종교집단을 형성하고 물질을 축적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군을 '통일기원 국조' 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세운 단군상 369기 이상 가운데, 그 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철거된 것을 100여기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공립학교에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2항 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교육 기본법 6조(教育의 中立性)

1항 教育은 教育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 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항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教를 위한 宗教教育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법을 위반하는 불법이요 불법 조형물입니다. 또한 세워놓은 단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참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단군상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2. 또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는 단학원과, 명상 교육기관인 단 월드(단학, 단학선원)를 설립하고, 기수련(기체조, 뇌 호흡, 단 요가, 단학가공, 단전호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련이라고 유혹합니다. 학교,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구청, 관공서, 한방병원, 군부대까지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학과 뇌 호흡의 효과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처에서 기수련을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전국 50여개 이상의 기업 단체에서, 각종 가구, 건강식품, 의류, 신발, 삼족오(三足鳥, 우리 민족이 하늘 자손임을 의미한다는 새), 목걸이, 귀걸이, 팔찌, 총명 베개, 기찬 방석, 자동차 스티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氣)가 들어있다고 만병통치처럼 유혹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수학여행이나 출장 나갔다가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기(氣)가 들어갔다고 속여, 만원도 안 되는 고액에 제품을 고액에 팔기도 합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63.7%인 것도 있었습니다. 부적을 붙이는 것과 같은 미신을 조장하는 헛된 곳에, 돈을 쏟아 붓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4. 저들은 2005년 국제 뇌 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충남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167)를 세우고, 1999년 한국 뇌 과학 연구원, 2006년에는 국제 뇌 교육협회를 세웠습니다. 뇌 교육 뇌 개발이, 인성 교육, 학교 폭력 근절, 행복한 학교(Happy School) 만들기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업무체계를 맺고, 현재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파진동, 뇌 개발로 천재를 만든다고 속이고, 영적으로 유해(有害)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사이비를 넘어 사이비 종교(Cult)라고 비판합니다. 정부 기관의

뇌 교육에 비하면, 머리를 흔들게 하고 배와 가슴을 두들기게 하는 뇌 교육은 완전 허구(虛構)요, 무당교육입니다. 이것이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5. 최근에 유원지나 동산, 공원 내에 천부경비(天符經碑)를 세우고 있습니다. 천부경이란 9천 년 전 부터 입에서 입,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통일 신라의 최치원이 81개 한자로 번역한 글입니다. 81자는,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돌아가되,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사람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부경은, 단군을 교주로 섬기고 있는 대종교의 경전입니다. 이 천부경에 우주의 생성원리가 담겨 있다고, 이 천부경 정신이 우리의 건국이념, 교육이념, 홍익인간(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단군의 건국이념)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반드시 철거해야 할 천부경비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6. 현재 단학의 3대 성지는, 국학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67-1, 2004년 설립) 천일암(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7-11, 모악산 단학의 발상지) 천화원(충북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10. 일지명상센터, 1989년 설립)입니다.  
1989년 충북 영동에 천화원(仞化院)을 개원하고, 인간도 기(氣)수련을 통해서 신(神)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낮 뜨거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7. 개천절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개천절(開天節)은, 환웅이 하늘 문을 열고(開天) 지상으로 내려 왔다고, 음력 10월 3일, 개천절 노래를 부르면서 경축일로 지켰던 단군 교도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다가 1949년 나라가 어수선할 때 소수의 단군주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로 바뀌어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단군교의 자체 절기를,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역사 교과서,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천절 노래를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단군은 우리 할아버지이고 조상이며,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나중에 단군을 국조로 믿거나 숭배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도록 단군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상을 수록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8. 단군교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 역사문화 찾기 추진위원회’ 라는 100여 개 민족단체가 ‘개천절 요일 지정제 반대 및 단기 연호 부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기(西紀)를 없애고 단기(檀紀)를 쓰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 Ⅲ. 그렇다면 단군상과 그 문제에, 그리스도인, 각 교회와 노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1.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철거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철거해 달라고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청원하면, 학교장은 2천만 원 이하 기물은 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얼마 전, 4학년 이상 학부모와 교사 327명이 단군상 철거

문제를 321대 6으로 가결하여, 합법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또한 유원지나 동산, 공원 내에 세운 천부경비(天符經碑)를 철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한문으로 허수아비 우(偶) 형상 상(像)이니,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우상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형상, 조형물(造形物)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노여워하겠습니까?

2. 단 월드(단학, 단학선원), 기 수련(뇌 호흡, 단 요가, 단 기공, 단전호흡, 단 태권도) 하는 곳에 교우들의 참석을 금해야 합니다. 그들 회원의 40%는 불교인, 31%는 기독교인, 25%는 천주교인, 4%는 기타라고 그들이 공개했습니다. 결국 단학, 기 수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 신인합일(神人合一)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1세기는 사람이 신의 지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지배를 받는 시대' 라고 하면서, 기 수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3. 인간의 기(氣)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있는, 단월드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저들의 뇌 교육은 완전 허구요, 사이비입니다. 교육청, 교육 지원청, 학교에서는 이런 뇌 교육과 업무체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고 맺은 업무체결은 파기하게 해야 합니다. 건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 뇌 연구원의 뇌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5. 단군상, 뇌 교육 문제에 잠들어 있는 교인도 목회자도 깨워야 합니다. 단군상, 이런 뇌 교육 문제가 무섭게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단군상, 이런 교육 문제에 잠들어 있거나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거리 고장 난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군이란, 몽고에서 무당이란 뜻으로 '텡그리'(Tengri)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음차 한 것이 단군입니다. 호남지방에서는, 무당을 단골 또는 당골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단군 신화를 사실화(史實化) 윤리화(倫理化)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6.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기도시간에, 단군상, 이런 뇌 교육을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 등 각종 기도회 시간에, 이 제목으로 합심기도 해야 합니다. 10월 6일, 첫 주일은, 단군상 문제에 대하여 꼭 설교 하고, 단군상문제대책 기도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7. 시찰회, 노회 단위로 단군상 문제를 각성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연합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준비 된 강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의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 교단의 전국 68개 부노회장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단군상문제대책 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여하고 나서, 통합측 교단만 단군상 문제에 개어 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신천지 못지않게 큰 과물로 다가오는 단군상, 이런 뇌 교육 문제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68개 노회 지도자 정책협의회와 교육도 계속해야 합니다.

총회는,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와 연구소를 특별위원회로 계속 존속시켜야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책자, CD를 발간하여, 전국교회에 보급해야 합니다.

총회는 단군상, 뇌 교육 문제에 대한 교회학교 공과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8.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백만여 명입니다. 5천 백만여 명 가운데

1) 크리스천(Christian)은,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천만 명 이상이라 집계합니다.

2) 넌 크리스천(Non Christian)은, 타 종교인을 비롯하여 4천 백여만 명입니다.

3) 안티 크리스천(Anti Christian)은, 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를 개독교, 교회를 개집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나 목사가 실수하면, 물고 늘어지고 악플(惡性 reply, 惡性 댓글)로 도배합니다. 어떤 부류가 안티입니까? 주로 1)불교, 2)신천지, 3)단군교, 4)통일교, 5)천주교, 6)이슬람교, 7)대순진리회, 8)전교조 등의 극렬한 일부가 안티입니다.

4) 타도 크리스천(打倒 Christian)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꺼꾸러뜨리자, 까부셔버리자 하는 자 들입니다. 모두 다 안고 가야 할 자들이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클릭하는 누적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Naver, Daum 순으로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은 모두 합쳐봐야 718만부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유가지(有價紙)는 520만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큰 괴물입니까? 그러므로 총회는, 인터넷 자원 봉사요원을 모집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9. 단군상 문제에 목숨 걸고 대처하고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명문 가정이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강아지나 가구나 돈은 귀히 여기면서,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사소한 일로 사람을 울리고 상처 주는 가정은 볼품없는 가정입니다. 그들의 연구내용과 실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군상 문제에 대한 관제탑, 고급정보를 준비한 저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해야 합니다.

10.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단군상, 이런 뇌 교육 문제에 대해, 바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단군신화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훈련시켜 무장하게 해야 합니다.

11.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엄청난 작품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리, 내 가정, 내 교회, 내 목자를 지키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백절불굴(百折不屈) 칠전팔기(七顛八起) 일편단심(一片丹心) 영구불변(永久不變)의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23-24)